

충청중국포럼

중국동향과 진단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허베이 - 산둥 - 통신

- 산동성 각 지역, 남색경제구 관련 산업 연맹 출범
- 산동성 칭다오, 자오둥 반도 해상신도시 조성
- 산동성 칭다오, 홍다오신구 인프라 건설투자 비준
- 산동성 칭다오, 5대 중점 관광 개발 프로젝트 추진 외

‘충청중국포럼’ 소식

- 제6차 충청중국포럼 개최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박인성 · 유광철

◎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1. 왜 산동성인가?

- 중국 황하(黃河) 하류에 위치한 산동반도는 동쪽으로 발해(渤海)와 황해(黃海)와 접하며 돌출되어 있고, 한반도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충남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서해안 지구와 교류가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 산동성은 한반도를 포함한 충남지역과 지리적 인접성을 기초로 역사적으로 빈번한 교역·교류관계를 축적해 왔고, 특히 한중 수교 이후에는 통상,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 산동성 동부연해지구에는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등 주요 항구도시들이 해상운수 거점 역할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항구도시들을 통해서 한국·일본과 교역·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이들 항구도시들은 제조업과 농산물 가공업 발전, 도시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와 함께 주변지역 발전을 대동하는 대외 파급 영향력도 강하다.
- 산동반도는 지리위치상 한국과 매우 가깝고, 특히,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3개 시는 우리 기업과 산업 간 교류가 가장 많고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 이미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를 비롯해 일본의 마쯔시다(松下), 미쯔비시(三菱) 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다.

- 단, 최근에 중국정부는 외자유치 시, 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산업은 거절하고, 고급신기술산업과 장비제조업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 산동성 도시군 발전전략에서는, 국가 방침을 적극 수용해 지역경제 합작의 선진제조업 생산서비스 중심을 조성하고, 나아가 산동반도, 한국 서해안 지구, 일본 큐슈(九州)지구로 조성되는 '중-한-일 황해 지구 성장삼각'을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 **산동성은 충청남도과 우호협력관계 성(省)이고, 충남도내 시·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 교류 파트너 시·현이 가장 많은 성(省)이기도 하다.**

- 자매결연: 당진시-르자오(日照)시, 태안군-타이안(泰安)시
- 우호협력: 천안시-웨이하이(威海)시 원딩(文登)구, 아산시-웨이팡(濰坊)시, 서산시-웨이하이시 룡청(榮成)시, 당진시-자오난(膠南)시, 논산시-지닝시(濟寧市, 진행중), 태안군-옌타이시 평라이시(蓬萊市, 진행중)

● **산동성은 1990년대 초에 중국에서 최초로 '해상산동(海上山東)'건설이라는 발전전략을 제출했고, 2011년에는 중국 최초로 해양경제 확대에 중점을 둔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발전계획(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規劃)을 중국 국무원이 비준하고 국가발전전략으로 확정함에 따라 해양경제 관련사업 정책과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충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해양 충남' 추진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2. 산동성 개황과 역사

- 2014년 산동성 총인구는 9,789만명, 행정구역면적은 15만 7,100km²이고, 17개 시(市)와 140개 현(縣: 현급시와 區 포함)을 포함하고 있다.

- 참고로 2015년 10월 현재 충청남도는 인구 약 207만 명, 행정구역 면적 약 8,200km², 우리나라 전국 인구는 약 5,150만 명, 면적은 약 10만km²이다.

- ‘산동(山東)’이란 명칭의 유래는 금(金)왕조 이전의 지리개념으로 샤오산(嶠山), 화산(華山) 또는 타이항산(太行山) 동쪽의 광대한 황하유역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 중국에서 산동지역은 ‘魯(lu)’라는 약칭으로도 불리며, 역사가 유구하고, 자연이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하여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 농업이 발달하고 공업체계가 완비되었고, 국민경제가 중국 전국에서 앞줄에 있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다.

- 산동반도는 한족(漢族)의 중요한 발원지 중 하나로서, 유명한 룡산(龍山)문화와 따원커우(大汶口)문화가 바로 산동에서 시작되었다. 전국(戰國)시기 제(齊)나라의 수도인 린즈(臨淄: 지금의 淄博시)의 인구가 약 42만 명이었고, 이외에도 수 만명 규모 인구가 거주한 주요 도시들이 있었다.

- 서한(西漢) 시기에 산동반도 인구는 1200만 명에 달해 당시 중국 전국 인구의 1/5을 넘었으며, 당시 아시아 대륙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구 중 하나였다.

- 한(漢) 대에 이르러서 린즈는 전국적인 상업 대도시가 되었고, 인구가 백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 수(隨), 당(唐) 시기에는 즈보의 청기와, 칭저우(靑州)의 비단방직, 그리고 연해 각 현(縣)의 천일염업이 모두 전성기에 달했고, 상업과 교통도 매우 발달했으며, 덩저우(登州)와 라이저우(萊州)는 당시 중요한 해외교통관문 및 조선업 중심도시였고, 일본과 조선 등지와의 교역이 활발했다.
 - 송(宋) 대에는, 북방 민족 요(遼), 금(金)의 남침에 밀려서, 미저우(密州: 현 諸城) 판차오진(板橋鎮: 현 靑島)이 당시 북방 유일의 출해 항구였고,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무역항구중 하나가 되었다.
 - 원말(元末), 명초(明初)에는 계속된 전란(戰亂)으로 인해, 산둥반도는 거의 무인지경이 되었으나, 명(明)대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의해, 인구와 경제가 회복되었고, 청(淸)대에 인구와 경제가 매우 빠르게 증가, 발전해, 전국 금 생산량 5000량 중 교동반도와 지난(濟南) 일대에서 4000량을 점했으며, 인구밀도는 17세기 중엽 11인/km²에서 19세기 중엽에는 212인/km²로 증가했다.
-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는, 중국 정부의 건설 및 투자중점이 내륙에 치우쳐 있던 관계로, 산둥성내에서도 칭다오(靑島),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등 경제기초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연해지구에는 별다른 투자가 없었고,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에 따라 즈보(淄博), 동잉(東營) 등의 반도내 내륙도시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 당시 경제사상의 영향과, 엄격한 도시농촌 호적관리제도와 농촌 귀향을 장려한 상산하향(上山下鄉)운동 추진 등으로 인해 도시화와 도시발전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개혁개방 이후에는, 대내 개혁과 대외개방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군(城市群) 형성의 근본 동력이 되었다.

- 1984년 칭다오(靑島)와 옌타이(煙台)가 처음으로 연해개방도시로 비준되어 대외개방된 후부터, 이 두 도시는 외향형 경제를 주축으로 지리위치, 자원, 경제정책 등 방면에서 다양한 우세를 발휘하며 급속하게 발전했다.
- 1985~1991년에 연해지구 항구도시인 웨이하이, 웨이팡, 즈보, 르자오가 제2기 대외개방도시가 되었고, 이어서 산둥반도 전체가 경제개방구가 되었으며, 성리유전(勝利油田)이 발굴된 동잉시도 국무원 비준에 의해 연해경제개방구가 되었다.
- 대외개방 이후, 칭다오, 옌타이(煙台), 웨이하이(威海), 웨이팡(濰坊) 등 도시가 모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투자와 한국과의 무역을 바탕으로 한 웨이하이시의 발전이 가장 빨랐다.

● 이 지구의 양대 중심도시는 지난(濟南)과 칭다오(靑島)인데, 1990년 대 이래 칭다오의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성도(省都)인 지난을 경제적으로 추월했다. 2014년 산둥반도 주요 도시의 인구규모는, 칭다오시 905만 명, 지난시 707만 명, 옌타이(煙台)시 700만 명, 웨이팡(濰坊)시 925만 명, 린이(臨沂)시 1022만 명, 즈보(淄博)시 462만 명이다. (〈표 1〉 참고)

〈표 1〉 산동성 지급시별 인구 현황(2014)

지역	인구(만명)	산동성 총인구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산동성	9789.3	100.0	0.58
지난(濟南)	706.7	7.2	0.97
칭다오(靑島)	904.6	9.2	0.92
즈보(濰博)	461.5	4.7	0.49
자오좡(棗莊)	383.1	3.9	0.79
동잉(東營)	209.9	2.1	0.68
옌타이(煙台)	700.2	7.2	0.19
웨이팡(濰坊)	924.7	9.5	0.24
지닝(濟寧)	824.0	8.4	0.42
타이안(泰安)	558.1	5.7	0.23
웨이하이(威海)	280.9	2.9	0.13
르자오(日照)	287.1	2.9	0.70
라이우(萊蕪)	134.5	1.4	0.95
린이(臨沂)	1022.1	10.4	0.61
더저우(德州)	570.5	5.8	0.60

출처 : 산동성 인민정부(shandong .gov.cn)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중국의 행정구역 층차(層次) 중 ‘지급시(地級市)’란 지구급 시(市)란 의미이다. 산동성의 경우 1983년에 원래의 옌타이지구(煙台地區), 웨이팡지구(濰坊地區), 지닝지구(濟寧地區)를 각각 ‘지급시’인 옌타이시(煙台市), 웨이팡시(濰坊市), 지닝시(濟寧市)로 개편했고, 이어서 타이안시(泰安市, 1985), 린이시(臨沂市, 1994)와 더저우시(德州市, 1994), 라오청시(聊城市, 1997), 빈저우시(濱州市, 2000)와 허쩌시(荷澤市, 2000)를 ‘지구’에서 ‘지급시(地級市)’로 개편했다. 이외에도, ‘지구’를 거치지 않고 ‘지급시(地級市)’로 승격된 시는 웨이하이시(威海市, 1987), 르자오시(日照市, 1989), 라이우시(萊蕪市, 1992) 등이 있다.
- ‘지급시’ 행정구역은 시구(市區)내의 구(區), 교외지구(郊區)의 현(縣), 그리고 현(縣)과 동급인 ‘현급시’로 구성된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현재 산동성 행정구역은 17개 ‘지급시’(济南, 青岛, 淄博, 枣庄, 东营, 烟台, 潍坊, 济宁, 泰安, 威海, 日照, 莱芜, 临沂, 德州, 聊城, 滨州, 菏泽), 140개 현급 단위(49개 市辖区, 31개 县级市, 60개 县), 1931개 향진(乡镇)급 단위(460개 街道办事处, 277개 乡, 1194개 镇)로 획분, 구성되어 있다.

- 개혁개방 이래, 연해지구인 산동성 동부지구를 중심으로 고도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省)내에서도 동부연해지구와 중서부 내륙지구간의 경제발전수준 격차도 증대되어 왔다.

- 산동성 중부는 지난(济南)을 중심으로 성(省)의 정치, 문화중심으로 주변 각 지역의 시장요소와 자원을 흡수하면서 발전했으나 상대적으로 주변 도시의 발전동력을 감소 및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 산동성 서부지구는 장기간 낙후, 발전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 결과 성(省)내 동부지구와의 격차도 크다.

- 황하삼각주를 고효율생태경제구로 지정하고 고효율 생태산업체계의 기초를 건립중이다.

- 고효율생태농업, 석유장비제조업 등 5대 우세산업을 주축으로 고효율 생태 경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영업수입 30억~100억 위안 대 기업이 33개, 100억 위안 초과기업이 14개에 달한다.

- 황하삼각주지구는 이미 전국의 주요 양질의 양식과 면화 생산기지, 특색 과일과 채소의 생산가공수출기지, 그리고 생태양식기지가 되었다.

- ‘쇼우광야채(寿光蔬菜)’, ‘잔화겨울대추(沾化冬枣)’, ‘황하구 뚝게(黄河口大闸蟹)’, ‘가오칭 흑소(高青黑牛)’ 등 저명한 브랜드를 육성했고,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집중도가 가장 높고, 과학연구 능력이 가장 강한

석유장비제조산업기지를 건립했다.

- ‘보하이(渤海) 양식창고’ 공정은 중간정도 염분이 많은 알칼리성 토양 토지에 1만 무(亩)의 밀을 심어 1무당 평균 300kg 이상 생산에 성공했다.
- 동잉(东营), 빈저우(滨州), 웨이팡 북부(潍北), 라이저우(莱州) 4대 임항산업구는 이미 주중하이여우(驻中海油) 등 진입기업이 1300여 개이다. 동잉항(东营港) 경제개발구 총투자는 1000억 위안을 초과했고, 생산총액이 2009년에 비해 4차례 두배로 증가했고, 재정수입은 10배로 증가했다.

□ 환보하이지구 합작발전 개요

- **산동성에 속한 환보하이(环渤海)지구는 중국 화북(华北), 동북, 서북 3대 지역의 결합부에 위치하고, 산동성을 포함한 7개 직할시, 성, 자치구(北京市, 天津市, 河北省, 辽宁省, 山东省, 山西省, 内蒙古自治区)를 포괄하고, 면적이 186만㎢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 2015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환보하이지구 합작발전 개요(环渤海地区合作发展纲要)’(이하 ‘강요’)를 비준 동의하고, 환보하이지구(环渤海地区) 합작발전을 가속화하고, 중대 국가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와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발전총체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환보하이지구는 바다와 육지가 연접하고, 입지조건이 우월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산업기초가 양호한 중국내에서 종합우세와 발전잠재력을 갖춘 경제성장거점지구중의 하나이고, 대외개방과 현대화 건설 전체 국면에서 중요한 전략지위를 구비하고 있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환보하이(环渤海)지구 합작발전과 관련한 '강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보하이(环渤海)지구를 중국 경제성장과 전형승급(转型升级)의 신엔진, 지역협조발전체제 창신(创新)과 생태문명건설시범구, 아태지구를 겨냥한 전방위 개방합작문호로 건설한다.
-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带一路)', '베이징-텐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 등 국가전략의 역사적 기회를 확실하게 움켜쥐고, 경제발전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경제발전 질과 효익을 제고하면서, 지역 간 협조발전 촉진을 주요목표로 한다.
- 주체기능위상과 보유한 우세에 기초하여, 경제구조를 조정 특화하고, 대내 개혁 및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 합작체제 메카니즘을 창신(创新)하고, 기초시설의 상호연결, 생태환경 연계 방지 및 연계정비관리, 산업발전 협동, 시장요소에 연결유통한다.
- 사회보장의 공동 건립 및 향유에 중점을 둔다.
- 중점과제를 6개 방면으로 명확히 한다. 즉, ①중점 지역간 중대형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②생태환경보호 연계방지 및 연계정비 강화, ③맞춤형 산업 합작 추진, ④개방형 새로운 경제틀 구축, ⑤통일시장체계 완비, ⑥도농통합 구역협조발전.

● 국무원은 비준과정 중에, '강요' 실시에 대한 조직 지도와 감독검사를 적실히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베이징시가 환보하이(环渤海)지구 합작 발전협조기제를 건립, 주도하고, 환보하이지구 합작발전을 위한 양호한 정책체제 환경을 창조할 것을 주문했다.

- '강요'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7개 성(省, 自治區, 直轄市)과 국무원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작성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 비준 정신을 근거로 하여, '강요'를 하달 시행하고, 동시에 유관부문과 회동

하여 ‘강요’ 실시 상황에 대한 추적분석과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연구 해결하고, 좋은 경험과 방법을 총결 및 확대보급하고, 유관 성(省, 自治區, 直轄市)인민정부와 함께 적시에 실천상황을 평가 조사한다고 밝혔다.

3. 산동성 발전전략

3.1. 산동성 공간구조 발전구상

- 산동성의 지역경제발전을 담는 공간구조 구상의 가장 큰 틀은 성(省) 내 동부연해지구와 중서부내륙지구가 차별성을 유지하며 상호협동발전토록 한다는 것이다.
 - 성(省)내에서도 동부연해지구는 남색경제구(藍色經濟區)와 황하삼각주지구, 즉, 소위 남황지구(藍黃地區)로 구성되고, 서부 내륙지구는 산동반도 도시군과 산동반도 남부 도시지대(一群一帶)로 구성된다.
- 산동성의 공간구조 구상 전략은, ‘1도시군, 1권역, 1지대(一群一圈一帶)’에서 ‘한 몸과 양 날개(一体两翼)’, 그리고 해양경제전략에 중점을 둔 ‘남색경제구와 황하삼각주(藍黃战略)’발전구상과 전략개념이 상호 중복 및 연계되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발전 목표와 위상은 다음과 같다.
 - ‘1도시군(一群)’은 동부에 ‘반도(半島)도시군’을 조성하여, 현대화 도시군과 제조업기지를 조성하고, ‘반도도시군’의 8개 시(濟南, 靑島, 烟台, 威海, 濰坊, 淄博, 日照, 东营)를 중국 전국에서 개방정도가 가장 높고, 발전활력이 가장 강하고, 핵심 경쟁력을 가진 지구중의 하나가 되게 한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1권역(一圈)’은 수도(省会) 지난(济南)을 중심으로 산동성 중부에 즈보(淄博), 타이안(泰安), 라이우(莱芜), 더저우(德州), 라오청(聊城), 빈저우(滨州)를 대동 파급권으로 하는 대도시권을 건설하고, 일체화 교통망을 건설, 완비하고, 우세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산업집적효과와 경제총체규모를 확대하고, 중부지구의 가속적 굴기를 촉진하여, 성 전체 구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 ‘1지대(一带)’는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등 성(省)과 접경하는 르자오(日照), 지닝(济宁), 린이(临沂), 자오좡(枣庄), 허쩌(菏泽) 등 5개 시(市)에 ‘산동남부(鲁南) 도시지대’를 건설하고, 신 아시아-유럽 대륙교(新亚欧大陆桥)에 의지하고, 자원, 위치, 그리고 개발잠재력 우세를 발휘하여, 산동성의 중요한 에너지와 석탄화학공업기지, 우수품질 농산품가공기지와 상업무역물류기지로 육성한다.
- ‘한몸과 양날개(一体两翼)’에서 ‘한몸(一体)’은 자오둥반도-지난(胶济) 철로를 축선(轴线)으로 동서방향으로 일체화 중추융기지대(中脊隆起带)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양날개(两翼)’는 성(省) 북쪽으로는 보하이만(渤海湾)과 연접한 황하삼각주와 남쪽으로는 장쑤성(江蘇省), 허난성(河南省), 안후이성(安徽省)과 접하는 산동남부(鲁南)경제지대를 가리킨다.

● 산동성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성(省) 공간구조 발전구상 틀은 ‘2개 지구 1개 권역 1개 지대(两区一圈一带)’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개지구 1개권역 1개지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은, 칭다오(青島)의 용머리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 성(省) 수도인 지난(济南)도시권의 파급 및 대동(带动) 능력을 제고하면서 지난(济南)-라이우(莱芜) 협작구(济莱协作区)와 성(省) 북부 연해지구의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중화학공업 건설을 가속화하고, 성(省) 서부지구의 경제발전정책을 구체화한다.

□ 2개 지구(两区)

● ‘2개지구(两区)’는 산동반도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와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경제구(黄河三角洲高效生态经济区)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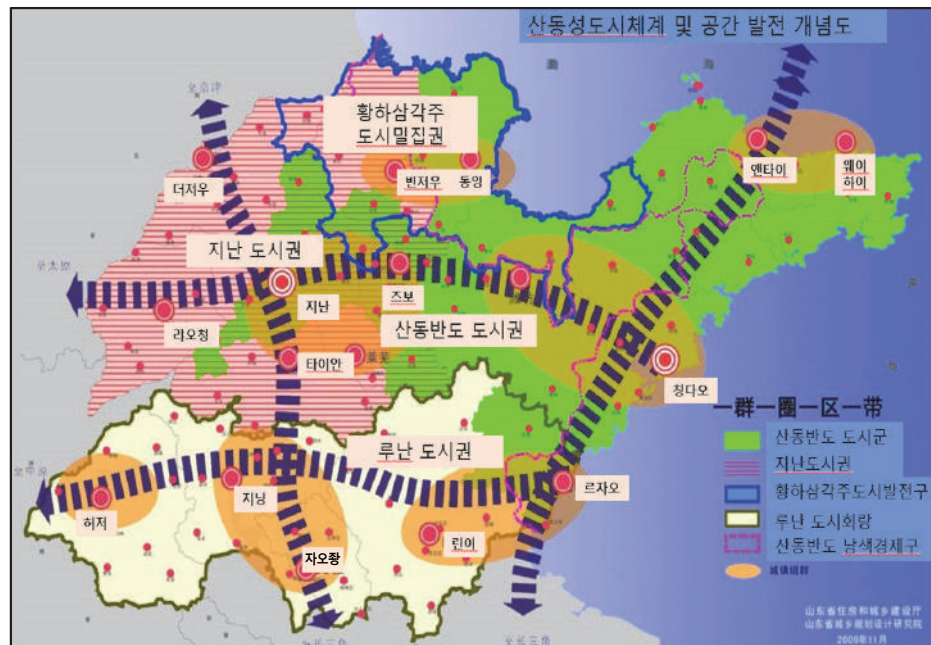
- 2009년 12월 3일, 국무원이 ‘황하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 발전계획’을 정식 승인했고, 2011년 1월 4일에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蓝色经济区发展规划)’을 승인했다.
- 이를 기점으로 ‘황하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와 산동반도 남색경제구’(통칭 ‘藍黃兩區’)가 국가전략으로 승격되었고, 국가지역협조발전전략의 중요 구성 부분이 되었다.
- ‘2개 지구(藍黃兩區)’는 12차5개년계획(2010~15)에 이어 13차5개년계획(2016~20) 기간에도 산동성 경제발전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 2011~2013년, 이 두 경제구(藍黃 ‘兩區’)의 지구생산총액 연평균 증가율이 산동성 평균치 보다 0.8% 높은 10.9%였고, 공공재정예산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18.9%로 산동성 평균치보다 0.5% 높았다.

-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 연평균 성장률은 21.4%로 전성(全省) 평균보다 0.8% 높았다.
- 산업구조도 지속적으로 특화되어 전략성 신흥산업, 고급신기술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금융 등 현대서비스업이 대폭 성장했고, 해안관광, 생태관광, 여가 휴양 등 관광업 행태가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다. 2013년 1,2,3차 산업구조는 6.9: 52.6: 40.5이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그림 1> 산동성 도시체계 및 공간 발전 개념도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그림 2〉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경제구 위치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 ‘1개 권역(一圏)’

- ‘1개 권역(一圈)’은 산둥성의 수도인 지난(濟南) 도시권을 가리키고, 핵심 목표는 성(省) 중부의 ‘성회(省會)도시인 지난(濟南)을 중심으로 즈보

(淄博), 타이안(泰安), 라이우(莱芜), 더저우(德州), 라오청(聊城), 빈저우(滨州)를 영향권으로 하는 대도시권 건설이 핵심이다.

- 일체화 교통망을 건설 완비하고, 비교우위가 큰 산업을 집적시키고, 산업 집적효과와 경제총체규모를 확대하여, 중부지구 굴기를 가속화 하고, 산동 지구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 '1개 지대(一帶)

- '1개 지대(一帶)'는 장쑤성, 허난성, 안후이성, 허베이성(苏豫皖冀) 4개 성(省)과 접경하고 있는 산동성 서남부지구를 가리킨다. 각 지역별로 각각 특색을 갖춘 4대 발전고지(发展高地)를 건설하고, 각 유형별 단지(园), 지구(区)의 발전수준을 제고하여, 고지가 인도하고(高地引领), 주축이 관통하고(主轴贯通), 광대한 규모의 발전태세를 형성하고, 지역경쟁력을 갖춘 경제융기지대(经济隆起带)를 공동 건설한다.

-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 및 돌출시키고, 상호 융합 및 합작, 자원개발을 가속화하고, 우세산업을 강화하여 산동성의 중요한 에너지와 석탄화공기지, 우량 농산품가공기지과 상업무역물류기지를 조성한다.
- 지닝(济宁)시와 자오좡(枣庄)시는 전형승급과 경제문화융합발전고지로 조성한다.
- 린이(临沂)시는 보유하고 있는 성급(省级) 이상 14개 개방구 각각의 산업 기초와 발전특색에 의거해, 특색산업개발원구를 계획하고 개발구 발전을 위한 중점산업을 확정하고, 산업집적(产业集群)을 추동 조성한다. 이미 기계, 전자, 첨단방직(高端纺织), 신에너지 자동차, 태양에너지 종합이용, 신재료, 생물제약, 문화창의, 식품가공, 신형건재 등 전통과 신흥 산업이 공생공영, 교차발전하는 산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를 기초로 상업·무역·물류고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라오청(聊城)시는 지역범위를 뛰어넘는 통합과 생태저탄소발전고지를 목표로 하고, 지난-라오청(济聊) 1급도로 건설을 통해 지난(济南)과 ‘반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고, ‘1권역 1지대(一圈一带)’전략에 대응하고자 한다.
- 허쩌(菏泽)시는 산동성 서부 경제융기지대(经济隆起带)의 ‘과학발전과 인접한 경제고지(经济高地)’로 조성한다. 허쩌(菏泽)시는 현재 에너지화공, 생물의약, 기전설비제조, 그리고 농부산물가공 4대 주도산업의 가치사슬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연장하고, 산업통제력과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상하류 결절 연장을 적극 추진 중이고, 중심도시, 현정부 소재도시(县城), 소성진(小城镇) 3급 도시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중이다. 또한, 상업무역물류와 문화관광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과 도시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업 증가치 점유비율을 연차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입지우세(区位优势)를 기초로, 동쪽을 잇고 서쪽을 연다(承东启西)와 남에서 끌어 들어 북과 연결한다(引南连北)는 전략과 기보유한 산업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산동성 서부 경제융기지대(经济隆起带)의 ‘과학적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고지(经济高地)’로 조성한다.

● 또한,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带一路)’ 연선국가와 기초시설 상호 연결 건설협작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해양협작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한다.

-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带一路)’와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 ‘장강경제지대(长江经济带)’ 3대 국가전략과 연결하여, 산동성과 주변성, 직할시 지구와 공동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 산동반도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와 황하삼각주고효율생태경제구(高效生态经济区)는 빠르고 편리한 출해통로(出海通道)를 보유하고 있고, 동북아경제권의 중요 조성부분이고, 그 자체로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带一路)’전략의 주요 부분이다.

- 2013년 산둥성 정부공작보고에서 ‘4개 지구 3개 원(园)’ 개념을 제시했다. ‘4개 지구’는 4개의 해양경제신구를 가리키고, ①칭다오(青岛) 서해안지구, ②옌타이(烟台) 동부지구, ③웨이팡(潍坊) 빈해(滨海)지구, ④웨이하이(威海) 남쪽 바다이다. ‘3개 원(园)’은 3개의 ‘중외합작공원지구(中外合作园区)’로, 칭다오 중국-독일생태공원(中德生态园), 르자오(日照) 국제해양도시(国际海洋城), 웨이팡 빈해산업공원(滨海产业园)을 가리킨다.

- ‘4개 지구 3개 원(园)’이 급속하게 굴기하면서, 칭다오 서해안신구에 항구항운, 선박해양공업, 자동차 부품 등 6대 천 억 위안급 산업집군이 형성되었다. 18개의 성(省)급 해양특색 산업단지의 집적효과가 증강되었다. 2000여개 기업이 집적되었고, 이중 해양산업기업이 60%를 점했다.

- ‘2지구, 1권역, 1지대(两区一圈一带)’전략의 순차적 실시와 안정적 추진에 따라, 산둥성은 횡적(동서), 종적(남북)방향으로, 전성(全省)을 포괄하는 발전 틀과 육지와 해양 경제발전을 통합하는 통로를 확정했다.

- ‘2지구, 1권역, 1지대’전략 실시는 바로 산업융합상호추동발전의 새로운 이념 수립을 필요로 하고, 구역일체화 발전형세를 점진적으로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발전 잠재력을 증강시킬 것이다.

- 현재 중국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구 발전 가속화는 산둥성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국내와 국외를 대국적으로 통합해 구상한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带一路)’전략 결정은 산둥성이 독특한 지리위치 우세를 기초로 대외개방의 새로운 틀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산둥성 남색경제구와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경제구는 유리한 출해통로를 보유하고 있고, 동북아경제권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므로, 본래 ‘육상 및 해상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신실크로드'전략의 중요한 지지대이다. '2지구, 1권역, 1지대(两区一圈一带)'전략의 핵심은 바로 지역융합개방발전 협동추진이기도 하다.

- 자유무역구와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전략 실시 기회를 포착해, 국제 지역 경제 일체화 합작에 적극 참여하고, 행정구획 한계와 지역분할을 타파하고, 자원유통을 통합조정하고,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고, 하늘과 땅이 일체화된 현대유통망을 구축하고, 통일개방, 질서있는 시장경쟁 유통체제를 건립하고, 산동성 개방형 경제를 심화시키는 손잡이로 삼는다.

●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전략 실시와 중-한, 중-호주 FTA 협정체결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개혁 촉진과 산업 승급(升级) 가속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과 합작참여 능력을 부단히 제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 자오둥(胶东)반도는 연해지구라는 지리위치우세를 충분히 활용해 대외개방 경쟁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한다. 산동성 북부지구는 수도경제권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남부지구는 장강삼각주 경제발전에 주동적으로 융합 진입하고, 서부지구는 중부의 성급지구들과 상호연계소통을 강화하면서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 칭다오(靑島)시의 사례를 보면, 해상실크로드의 중요한 항구이고, 동시에 신 아시아-유럽 대륙교(新亚欧大陆桥)의 교두보로서, 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는 우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중국 중서부지구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 연결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중국 장강삼각주 및 동남연해발달도시와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바다로 나가고 동북아 각국, 나아가 동아시아 및 전체 환태평양지구와 연결할 수 있다.

- 칭다오(靑島)시는 자유무역구 신청방안을 포함하여,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리스크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공간범위를 설정하면서 실시하고, 조건이 성숙하면 다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2. 산둥반도 도시군 현황과 발전방향

- 최근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건설 및 개통에 따라서 중국내 도시간 교통 상황이 대폭 개선되었고, 도시간의 산업연계와 경제협력이 부단히 강화되면서, 도시군(城市群: Urban Cluster) 형성과 지역경제 일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고 교류도 활발한 곳이 산둥반도 도시군이다.
- 산둥반도 도시군은 지난(濟南)-칭다오(靑島)축을 중심으로, 옌타이(煙台), 웨이팡(濰坊), 즈보(淄博), 동잉(東營),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등의 도시를 포함하며, 2014년 현재 총인구 3,769 만 명, 지구 총면적 약 9만3000㎢이다.

● 도시체계 구축방향

- 중심도시의 대동(帶動) 역할을 강화하고, 중심도시와 경제연계가 밀접한 외곽 현, 시의 경제발전 수준과 발전 규모, 그리고 도시화 수준과 질을 높인다.
- 또한 신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해, 반도내 도시간 연계의 빈틈을 보충한다.
- 가오미(高密), 주청(諸城), 라이양(萊陽), 롱커우(龍口), 칭저우(靑州), 핑두(平度), 평라이(蓬萊), 라이저우(萊州) 등을 중점 지원, 육성해, 대, 중, 소 도시가 협조 발전하는 도시체계를 형성하고, 산둥반도 도시연면구(都市連綿區)의 핵심지구로 육성한다.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지역내부 교통주랑(交通走廊)을 완성하고, 산둥반도 도시조직협조기반을 건립하고, 도시연면구의 형성과 발전을 지원한다.

4. 국가 및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추진동향

4.1. 중국 국가전략으로서의 남색경제 추진배경

-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남색경제(藍色經濟, Blue Economy)’란 용어가 등장하게 된 연혁과 배경을 요약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979년 덩샤오핑이 해군건설 관련 근해방어(近海防禦)의 전략 사상 제출.
- 1980년대부터 동부연해지구 개방정책 실시, 연해지구 우세자원을 이용하여 외향형 경제 발전으로 동부연해지구의 지속적 고도성장 실현.
- 1996년 3월, ‘9차5개년계획과 2010년 장기목표 강요’ 내용으로 “해양자원 조사 강화, 해양산업 개발, 해양환경 보호” 제시.
- 1998년 5월, 중국정부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한 백서인 ‘중국해양 사업의 발전’을 발표하고, “인류가 해양을 개발하는 신세기에 발전 중인 ‘연해대국(沿海大國)’으로서 지속적인 국민경제발전을 위해서 필히 해양의 개발과 보호를 장기적 전략임무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
- 2000년대 진입 이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이 가속화되고 전략자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절박해지면서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중시했고, 2002년 중공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해양개발 실시’ 전략 채택.
- 2003년 5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해양경제발전강요’에서 중국 최초로 ‘해양강국 건설’을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해양강국 전략 추진을 시작했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 확보가 중대한 문제로 부상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되는 추세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 그 후 2007년 중공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해양산업 발전’방침을 제시했고, 2009년에는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해양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해양 산업을 ‘남색경제’로 집중 육성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육지경제가 당면한 병목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해양경제에서 찾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2011년부터 시행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에서 최초로 해양경제의 발전사상노선(思路)과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즉, “육지와 바다의 통합 건지, 해양발전전략 제정 및 실시, 해양개발·규제·종합관리능력 제고”이다.

- **2012년 중공 제18차 전국대표대회(2012.11) 보고에서 ‘해양자원 개발 능력 제고, 해양경제 발전, 해양생태환경 보호, 국가해양권익의 수호, 해양강국 건설’ 방침과 ‘해양강국 건설’을 향후 5년 계획 목표로 제출했다. 이어서 중국 국무원은 지구별로 특화된 해양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동부 연해지구인 산둥성, 저장성(浙江省), 광둥성, 푸젠성(福建省) 4개 성(省)에 ‘남색(藍色)경제구’를 지정했다.**

- ‘남색(藍色)경제구’ 지정 기준을 받은 이후에 이들 4개 성 정부는 각각 ‘산둥 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 ‘저장성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계획’,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계획’, 그리고 푸젠성은 ‘해협 남색경제 실험구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표 2> 중국 4대 국가급 해양경제 육성지역 발전계획 비교

구분		산둥성	저장성	광둥성	푸젠성
계획명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	저장 해양경제 발전시범구 계획	광둥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계획	해협 남색경제 실험구 발전계획
발표시기		2011.1	2011.3	2011.8	2012.11
개발기간		2011~2020년	2011~2020년	2011~2020년	2011~2020년
면 적	해역	15.9만km ²	26만km ²	41.9만km ²	13.6만km ²
	육지	6.4만km ²	3.5만km ²	8.4만km ²	5.47km ²
대상지역		靑島,烟台,东营,潍坊,威海,日照,滨州 (7개시)	杭州,宁波,温州,嘉兴,绍兴,舟山,台州 (7개시)	广州,深圳을 포함 한 14개시	福州, 厦门 등 연해 6개시
해 양 산 업 총액(2011)		7,892억원	4,500억원	9,800억원	4,420억원
전략위상		자원개발, 생태환경, 국제협력	산업업그레이드, 육해 종합발전	해양경제 종합발전, 지역경제파급효과	양안 해양협력, 해양산업 클러스터 유

자료 : 국무원 4대 지역 해양경제발전계획, 중국해양통계연감, 2011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2013년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 시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해양강국 건설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 강조하고, 새로운 시기에 어떻게 ‘해양강국’을 건설하느냐는 중대한 전략문제에 대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그리고 해양권익 4개 방면에서 실천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이로써,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이 이념인식 단계에서 현실실천 단계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에서 해양산업은 해양의 개발, 이용,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가리키며, 어업, 제염, 조선, 해운·항만·물류 등의 전통 해양산업과 다른 신흥해양산업 범주에 해양석유가스, 해양양식업, 해수담수화,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등을 포함한다.

- 한편, 산업통계기준으로는 1차산업(해양어업), 2차산업(해양 석유·가스·광물 채굴 및 가공, 해양 제염 및 가공, 해양화학공업, 해양생물의약품, 해양

전력업, 해수담수화, 해양선박공업, 해양공정건축업), 3차 산업(해양교통운수업, 해양관광업)으로 분류한다.

- 2013년 중국 전국 해양산업 증가액은 3조 2천억 위안이었고, GDP 점유비중은 9.5%였다. 최근 10년간 해양산업 평균증가율이 동기간 GDP 증가율보다 높았다.
- 해양산업 체인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고, 과학기술, 교육, 금융, 환경보호 등 연관산업 발전을 대동하고, 전국의 해양관련 취업자 수가 3,513만 명에 달한다.

4.2.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전략

- 산둥성의 해안선 총길이는 3,100km로 중국 전체 해안선(1.8만km)의 1/6, 해역면적은 15.9만㎢로 중국 해역총면적(300만㎢)의 5.3%를 점하고 있는 점 등 해양경제 발전의 우세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 주요 해양자원 보유현황을 보면, 해양원유매장량 23.8억톤, 천연가스 110억㎥, 해저석탄 12.9억톤, 라이저우만(萊州灣)·자오저우만(膠州灣) 지역 1,500㎢지역에 분포된 풍부한 염수(鹽水)자원, 조류에너지 잠재량(4천만 kW), 해상풍력자원(잠재량 400만kW) 등이 있다.
- 중국 중앙정부와 산둥성정부가 경제성장의 엔진을 육지부(陸域)에서 해역으로 확대한다는 ‘남색경제(藍色經濟)’정책을 본격적으로 입안 추진한 것은 2007년 10월 중공17대 대회(2007.10.17.~21)에서, ‘해양산업 발전과 현대 산업체계 구축’ 방침이 제출되고, 이어서 2009년 4월에 당시 총서기 후진타오(胡錦濤)가 산둥성 시찰 시에, “해양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고, 해양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해양우세산업을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육성하고, 산동반도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부터라 할 수 있다.

- 이에 앞서 산동성은 1990년대 초에 황하삼각주 개발과 함께 중국에서 처음으로 ‘해상산동(海上山东)’건설 발전전략을 제출한 바 있다.

●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의 개발을 갈수록 중시하고 있고, 해양경제가 국가 또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성장엔진(增长极)으로 부상하고 있다.**

- 중국정부와 산동성 정부는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조성이 산동성 경제 사회 발전이 블루오션인 해양경제 영역으로 향하는 새로운 단계와 전환점에 진입했다고 의미부여하고 있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산동성 해양자원 개발모델 전변(轉變)의 기본방향**

- 전통적 조방형 개발에서 현대 집약형 개발로. 해양어업, 해양염업, 근해 천연 가스 등 전통자원개발 분야에서 자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기초로 하고, 산업간 연계체인을 연장하고, 상품의 부가가치 개발 수준을 높이고, 해양재생에너지, 해양생물자원, 해수자원 등 신형자원 개발에 정책지원 강도를 증대하고, 특화산업 육성과 발전경로를 탐색하면서 자원 개발 규모를 확장한다. 또한 근해연안해역, 항구, 항로, 경관 등 공간자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공간충돌 감소와 이용효율 제고를 출발점으로 하고, 공간이용계획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간이용의 지속가능성 보장의 전제하에 효익(效益) 최대화를 실현한다.
- 해역 평면개발에서 입체종합개발로. 전통적 해양개발 모델은, 특정 해역에 대한 주요 개발 유형과 개발방식에 대해 해양기능에 따라 구획을 통해서 주요 자원의 개발 이용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해양자원의 입체적 분포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특정

공간의 다양한 종류의 해양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이용을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해양공간 기능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업과 위상을 정하고, 보다 포용적인 해양관리기제를 고안 설계한다.

- 근해(近海) 개발에서 심원해(深遠海) 개발로.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해양자원 개발범위를 해안지대에서 심해대양(深海大洋)으로 연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산동성을 포함한 중국내의 해양자원 개발은 소량의 어업자원과 천연가스자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해안선으로부터 1km 거리내의 해안지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심해대양(深海大洋)의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입이 부족하다. 현재 산동성 해양경제총량 중 해안지대경제 점유비중이 70% 이상이고, 심해대양경제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해양개발 배치에 대한 전략성 조정을 실시한다.
- 정부주도형 개발에서 정부 인도 하에 시장주도형 개발로. 2013년 11월, 중공 18기 3중전회에서 심의 통과된 ‘중공중앙 개혁의 전면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의 요구에 의해 항구, 도로, 단지 및 지구(園區) 등 중요 기초시설 건설 영역에 비공유제 경제 참여가 유리한 기제를 건립하고, 해양천연가스 개발 등 산업을 민영자본에 개방하고, 비공유제 경제가 해양재생에너지, 해수이용, 원양어업, 해양생물의약 등 업종에서 더욱 큰 작용을 발휘하고, 해양관련 금융, 교육, 서비스 등 영역에서 더욱 양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도한다.

[참고] 2013년 11월 12일, 중공 18기 3중전회에서 심의 통과된 ‘중공중앙 개혁의 전면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에서는 “경제체제 개혁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중점이고, 그 핵심문제는 어떻게 정부와 시장관계를 처리하는 가이고, 시장이 자원배치중 결정적 작용을 하고, 정부 역할을 더욱 양호하게 발휘해야 한다.”, 또한 “혼합소유제 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하고, 더욱 많은 국유경제와 기타 비공유제 경제가 혼합소유제 경제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폐쇄식 개발에서 개방식 합작개발로.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건설과정중 칭다오(靑島), 웨이팡(濰坊),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등 도시는 모두 중외합작으로 산업단지(產業園區) 건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까지 칭다오의 중-독일 생태산업원구만이 합작건설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다. 해양개발은 막대한 투자량, 큰 리스크, 복잡한 기술 등이 특징이므로, 대내 대외 개방과 국제 및 국내 합작 강도를 강화하고, 전방위, 다양한 형식, 다층차의 국제교류 및 합작, 그리고 자금과 기술 도입, 합작연구, 연합탐사 및 개발, 리스크 투자기금의 합작 건립 및 공동경영 등 방식을 통해서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가속화한다.

● 산동성 남색경제구는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를 주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이고,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경제구(黃區)'는 생태경제와 지속 가능발전 실현방안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산동반도 남색경제구와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경제구 건설이 국가전략으로 채택된 이래, 각종 요소 투입강도가 부단히 증대되었고, 산업의 전형(转型) 및 승급(升级), 그리고 클러스터(集群) 발전진행속도가 현저히 빨라졌고, 전성(全省) 과학발전의 강대한 엔진이 되었다.

● 2011년 국무원이 비준한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은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를 주제로 한 지역발전계획이며, 본 계획에서 해양산업 지역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 '계획'의 범위는 산동성 해역 전부와 6개 시(靑島, 东营, 烟台, 濰坊, 威海, 日照)와 빈저우(濱州)시의 2개 연해 현(无棣县, 沾化县) 관할 육지구역(陆域)이며, 해역면적 15.95만km², 육지면적 6.4만km²이다.
- 산동성은 2013년 1월 중국 최초로 '해양산업발전지도목록'을 제정했고, '지도목록'에는 해양바이오, 해양설비제조, 해양화공, 해양어업 등 10개 산업 분야에 대해 장려·제한·퇴출 규정을 제정했다.

〈표 3〉 산동성 해양산업 지역별 배치 계획

구분	해양산업 배치계획
해양양식업	30억㎡이상 양식기지(룽청荣成, 창다오长岛, 평라이蓬莱, 라이저우莱州, 자오난胶南)
원양어업	룽청, 소우광寿光, 평라이, 황다오
해양수산가공	수산물정밀가공기지(옌타이, 웨이하이, 칭다오, 르자오, 웨이팡) 냉동물류기지(룽청, 청양, 즈푸芝罘)
해양바이오	제조기지(옌타이, 웨이하이, 르자오, 웨이팡), 연구개발기지(칭다오)
해양장비제조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기지(칭다오, 옌타이)
해양에너지	조류(藻類)바이오에너지(칭다오), 석탄(룽코우), 조력발전(라이저우만)
해양공정건축업	해양공정건축업기지(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해양화공	해양신소재산업기지(칭다오, 옌타이, 웨이팡, 웨이하이)
해양운송·물류	4대 임항물류기지(칭다오, 르자오, 옌타이, 웨이하이) 동북아 국제물류중심(칭다오)
해양관광	국제적으로 유명한 해변관광지 조성(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자료 : 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規劃, 2011.1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2012년 산동성 주요 지역별 해양산업 생산총액은 칭다오 2,150억 위안 (GRDP의 13.8%), 옌타이는 1,727억 위안(32.7%), 동잉 1,050억 위안(18.3%), 르자오 680억 위안(50.2%) 차지했다.

- 2013년 칭다오시 해양경제 분야의 생산액은 1,317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고, 2009년부터 연평균 증가율 18.7% 증가, GDP 증가 공헌율 28.7%에 달했다.(전년 대비 1.8% 증가)

□ 산동성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 발전목표

- 현재와 금후 일정 시기에, 국가가 해양경제를 가속발전 시키는 중대 기회를 움켜쥐고, 해양경제발전 실험지구 업무를 심도있게 전개하여 산동반도 남색(蓝色)경제구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을 추동한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2020년까지, 현대해양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고, 종합경제실력을 현저히 증강시킨다. 발전방식 전변과 경제구조 조정을 실질적으로 진전 시키고, 해양경제 종합효익을 현저히 제고한다. 해양과학기술창신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자주창신능력을 대폭 제고한다. 단위지구 생산총액 에너지 소모와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해륙(海陆)생태건설, 오염정비, 환경의 질을 개선한다.
- 동북아 국제항운종합허브(枢纽)와 국제물류중심의 지위를 현저히 제고 시키고, 해양경제의 대외개방 틀을 부단히 완비한다.
- 인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소강사회(小康社会) 전면 건설이란 총체적 요구 목표에 솔선 도달한다. 해양생산총액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 지구내 연구·시험발전경비의 GRDP 점유비중을 2.5%에 도달 토록 하고, 해양과학기술 공헌율을 65%내외로 제고시킨다.
 - 1인당 평균 GRDP 8만 위안 초과,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수입과 농민 1인당 순수입 연평균 증가율 10%내외, 도시화 수준 65%내외 도달토록 한다.
- 2020년까지, 해양경제가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특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和谐)된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를 건설하고, 기본적 현대화를 솔선 실현한다.
 - 해양경제종합실력과 경쟁력이 중국 전국에서 앞줄에 서고, 세계선진수준의 해양과학기술교육인재중심을 건설하고, 경제개방 수준을 대폭 제고하여, 중국이 경제 세계화 발전의 중점지구가 되고, 해양생태문명 건설이 현저한 성과를 취득하고, 단위지구 GRDP 에너지 소모가 국내선진 수준에 달하고,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엄격규제, 지역해양생태환경 질을 부단히 개선한다.

-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부유하게 한다.
- 해양생산총액 연평균 증가율 12% 이상을 실현한다.
- 1인당 GRDP가 13만 위안 내외에 달하고, 도시화 수준 70% 내외에 도달한다.

□ 산둥성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 배치 구상

- 2014년 2월에 산둥성 구역발전전략추진판공실(區域發展戰略推進辦公室)이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 배치 구상(이하 ‘구상’)을 발표하고, ‘1핵(一核), 양극(两极), 3개 지대(三帶), 3개 클러스터(三組團)’를 총체적 개발 틀로 제시했다.

- ‘1핵(一核)’은 자오둥(胶东)반도 첨단해양산업 집적지구를 가리키고, ‘양극(两极)’은 황하삼각주 고효율 생태해양산업집적지구와 산둥남부(魯南) 임항 산업집적지구, ‘3개 지대(三帶)’는 해안과 근해(近海), 원해(远海) 3개 개발 보호지대를, ‘3개 클러스터(三組團)’는 칭다오—웨이팡(濰坊)—르자오(日照), 옌타이(煙台)—웨이하이(威海), 동잉(東營)—빈저우(濱州) 3개 도시클러스터(城鎮組團)를 가리킨다.

□ ‘1핵(一核)’: 자오둥(胶东)반도 첨단해양산업집적구

- 산둥반도 남색(蓝色)경제구의 핵심지역인 자오둥(胶东)반도 첨단해양산업집적구는 칭다오(靑島)를 용머리(龍頭)로 하고, 옌타이(煙台), 웨이팡(濰坊), 웨이하이(威海) 등 연해도시를 핵심으로 하여, 양호한 산업기초, 강한 과학연구 능력, 축적된 해양문화, 강한 경제 외향성, 완비된 항구 체계 등 방면의 종합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해양산업구조의 전형(轉型)과 승급(升級) 추진, 현대해양산업체계 구축, 전국적으로 중요한 해양고급 기술산업기지와 국제선진수준의 고급첨단 해양산업집적지구 건설, 해양 과학기술 자주창신능력과 성과전환 수준 제고, 해양생물의약, 해양신에너지, 해양첨단장비제조 등 전략성 신흥산업의 규모화발전을 추동한다.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원(園)과 구(區)의 집적기능과 자원요소배치 효율을 제고하고, 현대어업, 해양공정건축,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문화관광, 해양운수물류 등 우세산업의 집적·클러스터화 발전을 추동한다. 기술·장비수준과 생산품 부가가치를 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해양식품가공, 해양화공 등 전통산업의 고급첨단화 발전을 추동한다.

□ ‘양극(两极)’ 육성

-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해양산업집적지구(高效生态海洋产业集聚区)와 산동성남부(鲁南) 임항산업집적지구(临港产业集聚区)는 산동반도 남색(蓝色) 경제구의 중요한 거점이다. 남북 두 개의 성장거점 육성을 가속화하고,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협조발전 촉진을 위한 지역 전체의 실력을 제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해양산업집적지구는 간석지(滩涂)와 천연가스(油气) 광산자원이 풍부한 우세를 발휘하여, 환경우호형 해양산업을 육성한다. 일련의 대형 생태양식어업구를 건설하고, 현대어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자원탐사개발을 강화하고, 해양선진장비제조업, 환경보호산업 발전을 가속화한다.
 - 임항물류업,滨海생태관광업 등 현대해양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고효율 생태특색을 구비한 중요 성장거점을 육성한다.
- 산동남부(鲁南) 임항산업집적지구는 르자오(日照) 심수항(深水港)에 의지하여, 광활한 배후지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강철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钢铁产业调整和振兴规划)’의 요구에 의거하여, 르자오 강철 정품기지(精品基地) 건설을 적극 추동하고, 해양선진장비제조, 자동차 부품품,

천연 가스 저장운수가공 등 임항공업을 집중 육성한다. 집합소통운수 체계(集疏运体系) 건설을 강화하고, 항구와 배후지 간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현대항구물류업 발전을 가속화한다.

- 르자오 보세물류중심 건설을 가속화하고, 산둥남부(鲁南) 임항산업집적구를 지역 물류중심과 중국 동부연해지구의 중요한 임항산업기지로 조성한다.

□ '3개 개발보호지대' 구축

- 해안과 해양공간개발보호 틀을 특화하고, 해안, 근해와 원해(远海) 3개 개발보호지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해양자원개발이용 효율과 수준을 제고하고, 해양과 육지 산업의 호동(互动)발전을 촉진하고, 해양 경제의 육지부경제(陆域經濟)에 대한 대동작용을 진일보 증강시킨다.

● 해안개발보호지대

- 해안선에서 육지방향 10km에서 영해 경계선(领海基线) 사이의 대상(带状) 구역이고, 이중 내수면적 3.59만km², 자원환경수용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해양산업 발달, 인구와 도시 밀집 등 특징을 구비한 해양경제 육성발전과 해륙(海陆) 통합발전의 가장 중요한 구역과 우선개발구역이다. 특화개발, 보호강화의 원칙에 따라, 해안선, 간석지(滩涂), 만(海湾), 섬 등 공간 자원의 기능위상과 발전중점을 명확히 하고, 해양배경보호와 생태건설을 강화하고, 자원개발이용 수준을 제고하고, 해양산업구조 특화승급을 추진하고, 9개 집중집약용 바다구(海片区: 海州湾 북부, 董家口, 丁字湾, 前岛, 龙口湾, 莱州湾 동남안, 潍坊 해안, 东营 동부해역, 滨州해역)를 중점 조성하고, 기능이 명확하고, 우세를 상호보완하는 개발과 보호 틀을 구축한다.
- 해안선, 어업경제발전을 적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해안선을 전문적인 어업생산에 이용토록 확정하고, 기타 해안구간(岸段)은 자원조건, 환경상황,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지리위치에 근거하여, 엄격보호, 개발규제, 특화승급, 그리고 중점 개발의 4개 유형으로 획분하고, 개발보호방향을 명확히 한다. ①해안선 엄격보호. 주로 각 유형의 보호구, 중요지리표지 등이 소재한 해안선과 인근해역을 포괄하며, 생태 수복(修复)에 중점을 두고,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금지하고, 빈해관광 등 생태형 해양산업을 적절히 발전시킨다. ②해안 구간(岸段) 개발규제. 주로 자원환경 수용능력이 비교적 약한 해안선과 인근 해역을 포괄하고, 육지오염원 정비 중점 강화하고, 훼손된 해안선 해역에 대한 수복을 중점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활동을 엄격 규제한다. ③특화 승급 해안구간. 주로 개발정도가 비교적 높고, 인류활동영향이 비교적 큰 만해안선(海湾岸线)과 인근 해역을 포괄하고, 육지오염원 처리와 환경정비를 중점 강화하고, 해양산업구조를 특화하고, 지속가능발전 능력을 제고한다. ④중점개발 해안구간. 주로 자원환경 수용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경제 사회발전기초가 비교적 양호한 해안선과 인근해역을 포괄한다. 바다의 집중집약 이용과 해안격리(离岸) 건설 등의 개발이용방식을 시행하고, 고급해양산업과 현대임항산업을 중점 발전시킨다.

- 간석지(滩涂). 간석지(滩涂)자원과 생태계통의 보호를 강화하고, 질서있는 개발과 합리적 이용을 추진한다. ①보하이(渤海) 연안 갯벌. 생태양식을 실행하고 현대어업을 중점 발전시킨다. 지하염수(卤水)와 해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집약고효율 염업과 현대염화공업을 적극 발전 시킨다. 얕은 바다(浅海) 간석지(滩涂)의 자연생태를 회복시키고, 습지보호를 강화하고, 생태관광을 적극발전시킨다. ②황하이(黄海)연안 모래간석지. 르자오(日照) 완핑커우(万平口)에서 량청(两城), 하이양완미(海阳万米) 모래간석지, 루산인탄(乳山银滩) 등 양질 모래간석지 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운동 여가 등 특색관광 발전을 가속화한다. ③황해연안 갯벌. 생태보호와 회복 강도를 증대시키고, 고효율 양식(高效增养殖), 해양문화관광 등 산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 5대 만(海湾. 环胶州湾, 石岛湾, 威海湾, 芝罘湾, 莱州湾)을 중점으로 하

여 해안선을 특화 미화한다. 해양생태계통, 자연경관과 진귀동식물자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특화개발공정을 실시하고, 만(海湾)의 환경수용능력과 서비스기능을 한단계 더 승급시킨다. ①환(环)자오저우만(胶州湾)은 해양 고급기술산업과 현대서비스업을 특색으로 하는 만(灣)경제구로 조성한다. ②환(环)스다오만(石岛湾)은 해양신에너지산업을 특색으로 하는 해만(海湾)경제구로 조성한다. ③환(环)웨이하이만(威海湾)은 여가관광산업을 특색으로 하는 해만경제구로 중점조성한다. ④환(环)즈프만(芝罘湾)은 현대 서비스업을 특색으로 하는 해만경제구로 중점 조성한다. ⑤환(环)라이저우만(莱州湾)은 고효율 생태경제를 특색으로 하는 만(灣)경제구로 조성한다.

- 섬. 37개의 1km² 이상 면적, 그리고 인간이 거주하는 섬(岛屿)을 우선 개발하고, 5대 군도(岛群)를 중점 개발보호한다. ①묘오다오(庙岛)군도 및 옌타이(烟台)군도: 섬 보호 강화의 전제 하에, 현대어업과 관광업을 중점 발전시키고, 바람에너지(风能), 조수에너지(潮汐能) 등 해양청결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한다. ②웨이하이 군도: 현대어업, 해양운수업, 그리고 관광업을 가속 발전시키고, 류공다오(刘公岛) 해양문화관광 품위를 승급시킨다. ③칭다오 연안군도: 칭다오 경제기술개발구에 의지하여, 현대화된 항구 물류, 에너지, 그리고 수출가공기지를 조성한다. 링산다오(灵山岛), 텐형다오(田横岛), 주차다오(竹岔岛)를 중심으로 하는 군도 계열에 해진품(海珍品) 양식업과 관광업을 중점 발전시킨다. ④르자오 연안군도: 양식업과 관광업을 중점발전시키고, 연안해역군도 자연보호구를 건립한다. ⑤빈저우 연안군도: 연안 간석지 양식, 염(盐)과 염화공(盐化工), 경제작물과 약용식물 재배를 중점 발전시키고, 조개껍질모래(贝壳砂)의 개발이용을 강화한다.
- 근해(近海) 개발보호지대. 해안개발보호지대 외부경계선에서 외부로 12해리 넓이의 대상(带状) 구역으로, 풍부한 해양어업, 에너지, 광산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우세산업 양육을 위한 중점구역이다. 중점 개발, 합리보호 원칙에 따라, 해양자원 탐사와 개발이용을 가속화하고, 해양 에너지광산자원개발, 해양공정건축 등 산업을 육성하고, 근해개발이용 질서를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전면 규범화하고, 인공방류와 저파(底播) 증식규모를 확대하고, 금어기(禁漁期)와 금어구(禁漁區) 제도를 엄격 집행한다. 청결생산, 해상천연가스광산 채굴, 선박항행, 해상투기(海上傾廢) 등 해양환경오염 조성 방지 등을 시행한다.

- 원해(遠海) 개발보호지대. 근해(近海) 개발보호지대 외부경계선에서 전속(專屬) 경제구 외부경계선까지의 대상(帶狀) 구역으로, 해양생물, 해저광산 등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이용 전망이 광활한 해양경제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전략구역이다. 권익 수호와 질서있는 개발 원칙에 따라, 자원탐사 강도를 증대시키고, 해양 어획(捕撈), 해저에너지광산개발, 해양공정건축 등 산업을 발전시킨다.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해양환경 보호 국제의무와 책임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해양생태계통 평형을 유지보호한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3개 도시클러스터 육성

- 산동반도 각 도시의 발전수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도시체계 합리배치의 총체요구에 의거하여, 도시기초시설 건설을 완비하고, 구역중심도시의 종합서비스기능을 제고하고, 옌타이(煙台), 웨이팡(濰坊)을 비교적 큰 도시로 발전시키고, 칭다오(靑島)-웨이팡(濰坊)-르자오(日照), 옌타이(煙台)-웨이하이(威海), 동잉(東營)-빈저우(濱州) 3개 도시 클러스터(城市組團)의 협동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동부연해지구의 중요한 도시군(城市群)으로 육성하여, 해양경제 집적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 칭다오(靑島)—웨이팡(濰坊)—르자오(日照) 클러스터. 칭다오(靑島)의 지역 핵심 도시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창신형 도시와 서해안경제신구를 건설하고, 환만형(環灣型) 대도시 틀을 구축하고, 해양고급기술산업과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현대해양산업발전선행구, 동북아국제항운 허브(樞紐), 국제해양과학연구교육중심, 빈해관광여가명승지, 그리고 해상체육운동기지로 건설하고, 대동 및 파급 능력을 진일보 증강한다. 웨이팡(濰坊), 르자오(日照) 양대 중심도시규모를 확대하고, 도시발전 공간을 확대한다. 웨이팡(濰坊) 연접주체구와 연동구(聯動區)의 허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해양고급첨단 고효율산업을 중점 발전시킨다.

- 르자오(日照) 현대임항산업 중점 발전. 웨이팡(潍坊), 르자오(日照), 그리고 칭다오(青岛)의 기초시설 건설과 산업발전 등 방면에서 상호연관성을 강화하고, 일체화 합작발전기제를 완비하고, 상호 기능보완, 산업 호동(互动), 융합발전의 현대화 도시클러스터(城镇组团)를 형성한다.
- 엔타이(烟台)—웨이하이(威海) 클러스터. 엔타이(烟台) 국가창신형 도시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고, 엔타이, 웨이하이의 중심도시지위를 진일보 승급 시키고, 도시종합서비스 기능을 증강하고, 도시발전공간을 확대한다. 클러스터내 각 층차 도시의 발전을 통합(统筹)하고, 산업분업과 협동작업을 강화하고, 일체화를 추진한다. 일본, 한국과의 밀접한 경제무역 연계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외향형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해양고급첨단산업 집적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전국의 중요한 해양산업기지, 대외개방플랫폼, 그리고 중국 북방의 부유하고 매력있는 빈해 여가휴가지구로 건설한다.
- 동잉(东营)—빈저우(滨州) 클러스터. 동잉, 빈저우의 도시규모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기초시설을 완비하고, 도시종합서비스기능을 제고하고, 클러스터내 도시(城镇)와 산업의 분업과 협동작업을 강화하고, 고효율 생태와 해양경제특색을 돌출시키고, 우세산업을 크고 강하게 육성하고, 순환 경제를 가속 발전시키고, 특색 해양산업집적구를 집중 건설하고, 환발해지구의 새로운 성장지구 및 생태형 쾌적한 거주환경 도시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칭다오시 남색 실리콘 벨리 조성계획

- 2011년 1월, 중국 국무원이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을 비준 한 후, 칭다오시는 같은 해 상반기에 ‘계획’의 구체적 실천과 국무원이 제출한 ‘해양강국’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해양위주의 고급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집중구 건설을 특색으로 하는 ‘남색실리콘벨리(藍色硅谷)’ 건설 구상을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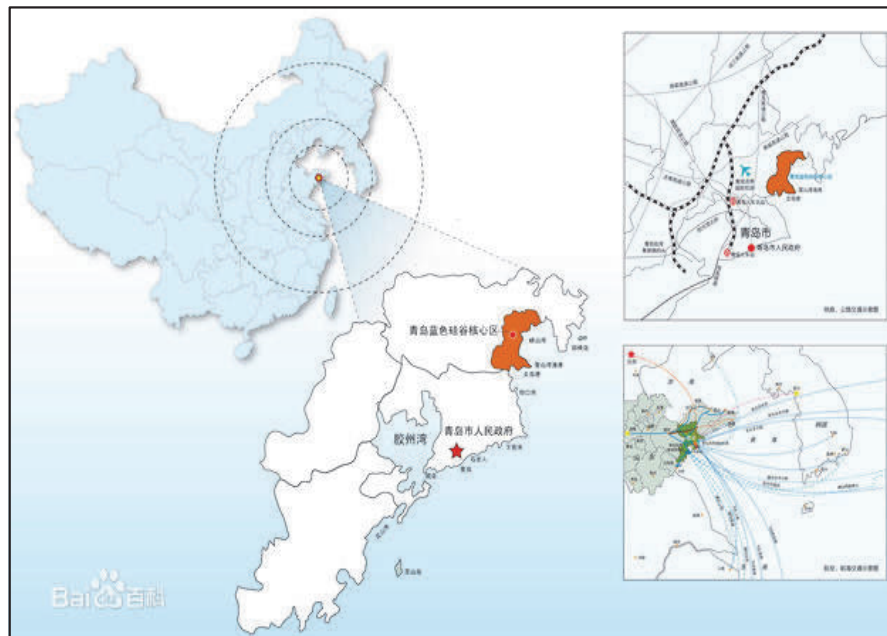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칭다오 남색실리콘밸리 핵심구계획(青岛蓝色硅谷核心区规划: 2013~2030)’이 국가발전개혁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해양국 등 5개 관련 정부 기관의 비준을 획득하고 시행됨에 따라 칭다오 남색 실리콘밸리가 정식으로 국가전략구역(国家策略的区域)의 지위를 획득했다.
- 칭다오시 서북쪽 해안에 위치한 칭다오 남색실리콘밸리핵심구(青岛蓝色硅谷核心区)는 총면적 443km²로 육지면적은 218km², 해양면적은 225km²의 규모로서, 관할구역 내에 116개의 마을과 10.29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총인구 70만명 이상의 남색신도시(蓝色新城)로 개발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계획구역 내에서 120여개의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투자액은 1,051억 위안 규모이고, 건설총면적은 1,880만m²이다.



<그림 3> 칭다오 남색 실리콘밸리 위치도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 ‘칭다오 남색 실리콘 밸리 신도시(青岛蓝色硅谷新城)’의 개발은 국가급 신구인 ‘칭다오서해안신구(青岛西海岸新区)’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향후, 서해안 신구를 단순한 제조업 중심기지가 아닌 연구개발·생산·

국제비즈니스·첨단도시의 기능이 융합된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 ‘R 1’경전철이 빈하이대도(滨海大道)를 통과하게 될 예정이며, 또한, 칭다오-인촨(青岛-银川), 지난-칭다오(济南-青岛), 칭다오-웨이하이(青岛-威海)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한 ‘30분 생활권’, ‘30분 경제권’을 조성하고자 한다.

● **남색 실리콘 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은 ‘남색중심’의 건설 프로젝트이다.**

- ‘남색중심(蓝色中心)’은 총건축면적 48만㎡의 규모로서, 3개의 공정으로 나뉘게 되며, 제1 단계에서는 129,494㎡의 규모로 개발된다.
- 실리콘밸리신도시의 종합운영모형은 남색실리콘밸리핵심행정서비스센터, 창업센터, 비즈니스상업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한 곳에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한편, 각 건설프로젝트는 배산임해형의 자연조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그림 4> ‘남색센터(蓝色中心)’ 조감도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 ‘남색실리콘벨리(藍色硅谷)’핵심구는 남쪽의 라오산(嶗山)구 스라오런(石老人)에서 북쪽의 지모(即墨) 텐헝진(田橫鎮)까지 빈하이 도로(瀕海公路)에 연결한 100개 사구(社區)와 247개 행정촌(行政村)으로 구성되며, 총계획면적 약 600km², 해안선 연장 약 198km, 지역총인구 약 39만 명이다.

● **칭다오 시 라오산(嶗山)구는 자연환경 조건 외에 해양과학연구 방면에 서도 그 기초와 실력이 두텁고 강하다.**

- 중국해양대학, 칭다오대학, 칭다오과기대학, 국가해양국 제1연구소, 중국과학원 칭다오 생물에너지 및 과정연구소, 중국과학원 소프트웨어연구소, 산둥과학원 칭다오분원 등 60여개 연구소와 과학연구기구와 대학, 그리고 시(市)급 이상 중점 실험실 24개소, 기업체 과학기술연구개발중심 20여개소 등.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남색실리콘벨리(藍色硅谷)’의 전략 위상은, 칭다오시의 해양과학기술 우세와 환경위치 우세에 의지하고, 지역내 해양고급과학기술자원과 연계하여, “기업을 주체로 하고, 산학연이 밀접하게 결합”한 지역해양과학기술 창신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인도, 시장 위상설정, 민간 운영”의 운영모델을 채택하여, 국가 수준을 대표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해양고급과학기술산업 집적구를 조성하여, 중국 전국의 해양과학기술 진보를 인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게 한다.**

- 칭다오시 남색실리콘벨리의 구체적 기능 위상 목표는, 중국 해양경제 발전의 엔진, 국가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심, 칭다오 경제발전의 신성장거점,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체제 창신(創新)의 선행지구, 칭다오시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 창출 등이다.

●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와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경제구의 현대해양경제가 번성했다. 2013年, 산동성 해양생산총액이 1조 위안을 넘어섰다.(2010년 대비 41.4% 증가) 해양장비제조업, 해양화공업, 해양 생물산업, 현대**

해양어업 및 수산물 정밀가공업, 해양운수물류, 그리고 문화관광업 발전이 중국 내 선두 지위를 유지했다. 산동성 최초의 해양산업연맹인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생물산업연맹’이 건립되었다.

5. 충남 해양정책에 대한 시사점

- 중국 국가전략 및 산동성과 칭다오시 등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색경제’ 발전전략 추진 경험과 동향이 ‘해양 충남’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함의는 무엇일까?

- 충남도와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중국 산동성은 1990년대 초에 이미 ‘해상산동(海上山东)’ 건설’ 전략을 제시했고, 2011년에는 중국 최초로 해양경제 확대에 중점을 둔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발전계획(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을 국가발전전략으로 확정하고, 해양 경제 관련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자원, 에너지, 환경 문제가 전지구적 문제로 대두되고,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원개발의 눈길을 바다쪽으로 겨냥하는 전략변화를 갈수록 본격화 하고 있다.

- 2010년 세계해양산업 증가치는 1조 5천억 달러로 전세계 GDP 공헌율 4%를 점했다. 세계해양산업은 최근 40여년간 약 10년을 주기로 두 배씩 성장했고, 2000년 이후에는 발전추세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2020년에는 3조 달러를 넘어서고, GDP 공헌율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 같은 추세 속에서 1242km 리아스식 해안과 357km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중국과의 거리 등 입지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 서해안의 자연환경조건과 입지 잠재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충남도가 도청을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고, 해양수산국을 설치(2013.7)한 것도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다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기 위해서였다.**

- 또한, '해양 충남'을 기치로 내걸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도내 25개 해양수산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충남해양수산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충남연구원내에 해양수산연구팀 설치, 도내 대학과 협력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중국 국가전략과 산동성이 수립 추진중인 '남색경제 발전전략'으로부터 적실한 시사점과 정책함의를 구하기 위한 전제는, 내용별 총위와 총차를 충남의 지역공간규모와 인구규모, 산업 및 경제 특성에 맞춘 분석틀이 될 것이다.**

- 2014년 현재 산동성 인구규모는 약 1억 명이고, 행정구역면적은 15만 7100km²로 충남인구(약 207만 명)의 약 47배, 충남 행정구역(약 8,200km²)의 약 19배이다.(우리나라 전국 인구는 약 5150만인, 면적은 약 10만km²)

- **한편, 아직 취약한 충남의 해양수산발전 여건과 기초를 고려하면, '남색 경제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해양관련정책을 전략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공중앙과 국무원, 그리고 산동성 및 칭다오시 정부의 남색경제 추진 동향은 적절하고 필요한 학습대상이라 할 수 있다.**

- 충남은 해양관련 기초시설과 해양관련 연구기관, 대학, 전문인력 등 해양 경제관련 제반 여건이 전국 평균수준 및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 따라서, 중국의 남색경제 관련동향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실한 틈새 찾기와 전략적 제휴 모색을 위한 대(對)중국 교류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충남도가 충남 연해지역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수립한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15~2030)’에 제시된 사업내용을 기초로, 자력 추진 가능한 사업과 국비사업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중국 산둥성의 ‘남색경제’ 추진전략과 연계한 실천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 ‘계획’이 제시한 6대 분야 98개 과제와 파급효과가 큰 ‘6대 골든 오션 프로그램’을 기초로 산둥성의 ‘남색경제 추진전략’과 연계한 시범선도 사업을 선정 또는 보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5~2030)’에서 제시한 6대 분야는, ①지속가능한 해양안전·환경조성관련 14개사업, ②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관련 25개 사업, ③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아름다운 어항 조성 관련 27개 사업, ④충남 미래 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관련 11개사업, ⑤국제물류·항만 거점 조성관련 12개사업, ⑥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관련 9개사업 등이다.

또한, 6대 골든 오션 프로그램은, ①서해연안환경 클린프로젝트, ②행복한 어촌 만들기, ③가로림만·안면도·원산도 생동프로젝트, ④레포트 Dream Line조성, ⑤해양신산업 무지개 프로젝트, ⑥환황해권 거점항만·물류네트워크 조성이다.

- **충남지역은 고대에 황해 제해권을 확보한 해상왕국 백제의 수도이자 백제인의 활동중심지역이었다. ‘해양 충남’은 백제의 영광을 다시 실현하기 위한 충남의 비전과 목표가 될 것이고, 그 실천전략 수립에 중국의 국가 및 지방발전전략인 남색경제 발전전략과 경험이 매우 유용한 연결고리로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슈와 진단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 참고자료

1. 韓立民等. 2015. '山東海洋經濟發展研究', 中國海洋大學出版社
2. 黃少安, 李增剛主編. 2015. '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報告2014', 中國人民大學出版社
3. '新常态下的山东区域经济', 濟魯週刊. 2014. 12. 23
4. 刘培林. 2015. '新常态下地方政府需要新的自我启蒙', 中国经济新闻网. 2015.6.30.
5. 山东推进 '两区一圈一带'发展战略, 中国海洋报, 2015.1.29.
6. 山東省區域發展戰略推進辦公室홈페이지
: <http://www.sdlb.gov.cn/col/col352/index.html>

이슈와 진단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허베이- 산동통신 (河北-山东通讯)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유광철 · 박인성

허베이-산동통신

- 산동통신—산동성 각 지역,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 관련 산업 연맹 출범
- 산동통신—자오둥 반도(胶东半岛) 해상 신도시 조성
- 산동통신—칭다오 라오산 해양생물화학 산업단지,
남색경제구 첫 프로젝트로 추진
- 산동통신—칭다오 남색실리콘 밸리 조성사업 국가급 계획으로 승격
- 산동통신—칭다오, 홍다오신구(红岛新区)인프라건설 시정부 비준 획득
- 산동통신—칭다오, 5대 중점 관광프로젝트 건설 추진

◎ 산동성 각 지역,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 관련 산업 연맹 출범

■ 지난 2011년 산동성 정부가 제출한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계획 (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이 국무원의 비준을 통과 하면서, 산동반도 남색경제구건설이 국가급 전략의 위상을 확보 함에 따라, 2014년 6월 칭다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생물 산업 연맹을 시작으로 산동성 내 각 지역에서 남색경제구 관련 산업연맹이 연이어 출범하고 있다.

- ‘산업연맹(产业联盟)’은 해당 업계에서 과학기술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협력 및 조정, 연구성과의 기술화,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최적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각 산업의 지역 착근화와 각 산업영역 간의 협조 발전(协调发展)에 중요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까지 산동성 내에서 총 6개의 지역별 산업연맹이 출범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관련 산업연맹 창립 현황

장소	시기	명칭
칭다오 (青岛)	14. 6. 17.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생물산업 연맹 (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生物产业联盟)
옌타이 (烟台)	14. 12. 29.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 장비산업 연맹 (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装备产业联盟)
웨이팡 (潍坊)	14. 12. 31.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 화학산업 연맹 (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化工产业联盟)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동력장비산업 연맹 (海洋动力装备产业联盟)
웨이하이 룽청 (威海 荣成)	15. 9. 18.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식품산업 연맹 (山东半岛海洋食品产业联盟)
르자오 (日照)	15. 10. 15.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수산물 정밀가공 산업연맹 (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水产品精深加工产业联盟)

출처 : 산동성 내 각종 언론자료

- 산동성 남색경제구는 칭다오(靑島)시를 선도도시로 주변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제계획특구로서, 해양자원에 기반하여, 지역 간 산업 분업체계를 확립하고, 해양산업을 중심으로한 산동성 지역 내 경제 공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생태, 경제사회, 기술 문화의 다양한 요소가 구비된 조화로운 발전추구를 목표로 한다.
- 또한, 산동성 남색경제구는 전국 해양기술산업의 선도구역, 생태문명 건설 및 사회조화진보의 시범구역, 해양-육상 일체화의 선도구역, 도농일체화의 선진지역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 **‘산동반도남색경제구 발전계획(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에 따르면 2015년까지 산동반도남색경제구 현대해양산업의 기초체계를 건립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는 선진해양경제체계를 건립하고,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이룬 남색경제구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 이러한 계획들은 현재 이미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는데, 칭다오(靑島) 서해안 경제신구는 38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옌타이(烟台) 동부해양경제신구는 실질적 개발단계에 돌입했으며, 웨이팡(濰坊)빈하이해양 경제신구는 95개 신규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 또한, 웨이하이(威海) 난하이해양경제신구의 경우, 세계 500강 기업을 유치했으며, 중국-독일생태원 또한 국가최초의 종합표준화시범구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독일센터(中德中心) 및 체험관 등 20여개의 신흥산업 프로젝트가 이미 추진됐다.
- 르자오(日照)의 경우, 향후 중국-싱가폴 간의 협력 해양경제산업단지가 조성, 국제해양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각 지역,
남색경제구
관련 산업연맹
출범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각 지역,
남색경제구
관련 산업연맹
출범

- 남색경제구의 구체적 산업 영역은 조선, 석유화학, 기계, 해양장비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분야에서부터 수산물을 활용한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바이오 제품, 그리고 요트, 마리나항 조성, 해양생태관광, 선박관련서비스업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에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공간구조 측면에서는, 2020년까지 9대 핵심구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진행되는데, 덩쯔만(丁字灣) 해상신도시, 웨이팡(潍坊) 해상신도시, 하이저우만(海州灣) 중화학공업집적구, 치엔다오(前島) 기계제조업집적구, 롱커우만(龍口灣) 해양장비제조업 집적구, 빈저우(濱州) 해양화학공업집적구, 동자커우(董家口) 해양고급과학기술 산업집적구, 라이저우(萊州)해양신에너지 산업집적구, 동잉(东营) 석유산업집적구 등이 산동성 남색경제구의 핵심 산업단지이다.



<그림 1>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9대 핵심구

자료 : 반도신문(www.bandao.cn)

■ 산동반도 각 지역별 산업연맹의 창립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생물산업연맹(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生物产业联盟, 이하 ‘해양생물산업연맹’)

- 2014년 6월 17일 ‘칭다오밍위예해초집단유한공사(青岛明月海藻集团有限公司)’에서 해양생물산업연맹이 출범했다.
- 2013년 기준, 칭다오시의 해양생물산업의 생산가치는 3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전국 총생산액의 15%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 향후, 해양생물산업연맹은 1) 각 회원 기업에 대한 정책자문활동, 2) 각 제조공정에 대한 표준 제정 및 인증서비스의 제공, 3) 상품 시장 개척 및 적극적 마케팅 활동에의 공동 참여 등을 통해 칭다오시 및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내 각 해양생물산업 기업의 발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2)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장비산업연맹(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装备产业联盟)

- 2014년 12월 29일, 산동성 엔타이(烟台)에서, 산동반도남색경제구 해양장비산업 연맹이 창립됐다. 성 남색경제구 판공실(区办) 량웬위예(梁文跃) 부주임은 이 자리에서, 현대시장경제의 조건 하에서 산업연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협력과 유대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향후, 해양장비산업연맹은 지역 내 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특히, 다른 연관산업분야 연맹과의 상호학습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산업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해양장비제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각 지역,
남색경제구
관련 산업연맹
출범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각 지역,
남색경제구
관련 산업연맹
출범

■ 3)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화학산업연맹(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化工产业联盟)과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동력장비산업 연맹(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动力装备产业联盟)

- 2014년 12월 30일, 산동반도남색경제구 해양화학산업연맹과 해양동력 장비산업연맹의 창립식이 각각 42개 기업, 19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한 가운데 웨이팡(潍坊)시 빈하이 경제기술개발구에서 개최됐다.
- 해양화학산업연맹 및 해양동력장비산업연맹은 혁신, 공존, 협력, 발전을 지표로, 각 회원사 간의 평등한 발전과 상호호혜, 위험의 고른 분산, 이익 공유 등의 원칙을 토대로, 기술혁신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4)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식품산업연맹(山东半岛海洋食品产业联盟)

- 2015년 9월 18일, 웨이하이 룡청에서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식품산업연맹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당자집단 유한공사(当家集团有限公司)’ 사장은 산동성 해양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식품산업 관련 핵심기업들을 지원하고, 해양식품 산업분야 기업 간의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자주적 혁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향후, 해양식품산업연맹은 산동성 내 각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첨단기술의 협력개발, 해양식품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각 산업부문 간 연계발전을 추진하여, 산학연 융합발전을 위한 일체화된 플랫폼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산동성 해양식품산업 고유의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고, 특히, 해양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검증에 대한 공공 플랫폼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5)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수산물정밀가공산업연맹(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水产品精深加工产业联盟)

- 2015년 10월 15일, 산동성 르자오(日照)시에서 40여개 기업과 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르자오(日照) 해양수산물 정밀 가공산업연맹이 성립됐다.
- 르자오는 산동성 어업과 수산물양식업의 주요 기지로서 시 전체 해양산업에서 수산물 가공업의 생산액 비중이 65%를 차지할 정도이지만, 그 동안 개별 기업 간 및 기업과 시정부 간의 협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향후, 수산물 가공산업연맹은 산동반도 남색경제발전 정책의 실현을 위해 업계 내부의 협력과 더불어, 과학기술개발 및 연구성과의 활용, 수산물가공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사업모형의 발굴, 해양산업 분야 우수기업의 지역 유치 등을 추진하고, 기존의 5개 산업연맹과도 밀접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자오둥 반도
해상신도시조성

◎ 자오둥 반도(胶东半岛) 해상 신도시 조성

- 2011년 국무원이 ‘산동반도남색경제구 발전계획(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 이하 발전계획)’을 비준한 이후, ‘자오둥반도(胶东半岛)’가 해양경제발전구역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총투자액이 1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여가, 오락, 여행, 주거 기능이 일체화된 해상 국제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림 2> 칭다오 도심과 해양경제발전구역 간 철도노선도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자오둥 반도
해상
신도시조성

■ 발전계획에 따르면, 양대 신도시와 7개 구역으로 구성된 9대 핵심구의 공간구조 중 ‘정자만(丁字灣) 해상신도시(海上新城)’가 양대 신도시 중 하나이다.

- ‘정자만(丁字灣) 해상신도시’는 해안관리, 습지복원, 유람선산업의 육성 및 부동산개발을 중점사업항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신도시 지역과 기존 칭다오 도심지역 간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보하이지구 산동성 도시간 궤도교통계획(环渤海地区山东省城际轨道交通规划)’을 통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칭다오(青岛)-하이양(海阳) 간의 ‘도시 간 철도(城际铁路)’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공 시, 양 도시 간 운행시간이 1시간 가량 소요되어, 칭다오와 하이양의 일체화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하이양(海阳)시 관광국장은 국제해변관광도시인 칭다오와 전국 10대 명승지인 하이양시가 연결되면, 양 도시 간의 관광·휴양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 현재, 칭다오 맥주 축제를 진행하는 해변이 협소해서, 점점 증가하는 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이양 시에는 약 4km 가량 이어지는 모래해변이 있기 때문에, 이 곳을 축제장소로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림 3> 하이양시 진샤탄 해변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 또한, 북방인(北方人)들은 해변가 별장구입을 희망하는데, 칭다오 시내 구역에 비해 1/3 가격이다. 이 점도 향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칭다오(靑島) 라오산(嶗山) 생물산업단지, 남색경제구 첫 프로젝트로 추진

- 칭다오 라오산 생물산업단지의 첫 입주 기업인 ‘칭다오 은색세 기건강 산업그룹(靑島銀色世紀健康產業集團)’이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남색경제해양개발기술관련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향후, 해양 활성화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식품 및 의약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베이- 산둥통신

칭다오 라오산
생물산업단지.
남색경제구
첫 프로젝트로
추진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라오산
생물산업단지.
남색경제구
첫 프로젝트로
추진

- ‘칭다오 은색세기건강산업그룹’의 덩웨이(丁伟) 회장은 “기업의 기술 투자는 선진기술에 대한 선점효과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자들의 유입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해양생물을 활용한 연구개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칭다오 은색세기 건강산업 그룹’은 2005년 창립했으며,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14년 9월 라오산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입주했으며, 투자규모는 1억 5천만 위안이다.
- 또한, 최근,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 ‘식품안전법’이 발효된 가운데,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제품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영역으로 업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 칭다오시 라오산 생물의약산업단지 개요

- ‘칭다오시 라오산 생물의약산업단지(青岛市崂山医药产业园)’는 ‘과학기술도시(科技城)’의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계획용지의 면적이 약 750무(亩)¹⁾에 달한다. 총 투자액은 약 24억 위안 규모이며, 총 건설면적은 약 50만 ㎡규모이다.
- 칭다오국가생물산업기지, 국가생물의약중앙실험센터 등 국가급 전략적 플랫폼 등에 위탁하여, 생물제약, 백신 및 진단시약, 생물기술상품, 해양건강식품 및 생물의약품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미 ‘중국과학원 란저우 화학물리연구소 칭다오분원’, ‘류허(六和)’, ‘웨이란생물(蔚蓝生物)’, ‘신더제약(信得药业)’ 등 16개 기업 및 기관들이 이미 단지 내에 입주해 있다.

1) 1무(亩) = 667㎡



<그림 4> 칭다오 라오산 생물의약품 산업단지 전경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 칭다오 남색실리콘밸리조성사업 국가급 계획으로 승격

■ 최근 ‘남색실리콘밸리 핵심구계획(蓝色硅谷核心区规划)’이 국가 발전개혁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해양국 등 5개 관련 정부 기관의 비준을 획득함에 따라 남색 실리콘밸리가 정식으로 국가 전략구역(国家策略的区域)의 지위를 획득했다.

- 칭다오남색실리콘밸리핵심구(青岛蓝色硅谷核心区)²⁾는 총면적 443 km²로 육지면적은 218km², 해양면적은 225km²의 규모로서, 관할구역 내에 116개의 마을과 10.29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총인구 70만 명 이상의 남색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계획구역 내에서 120여개의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투자액은 1,051억 위안 규모이고, 건설총면적은 1,880 만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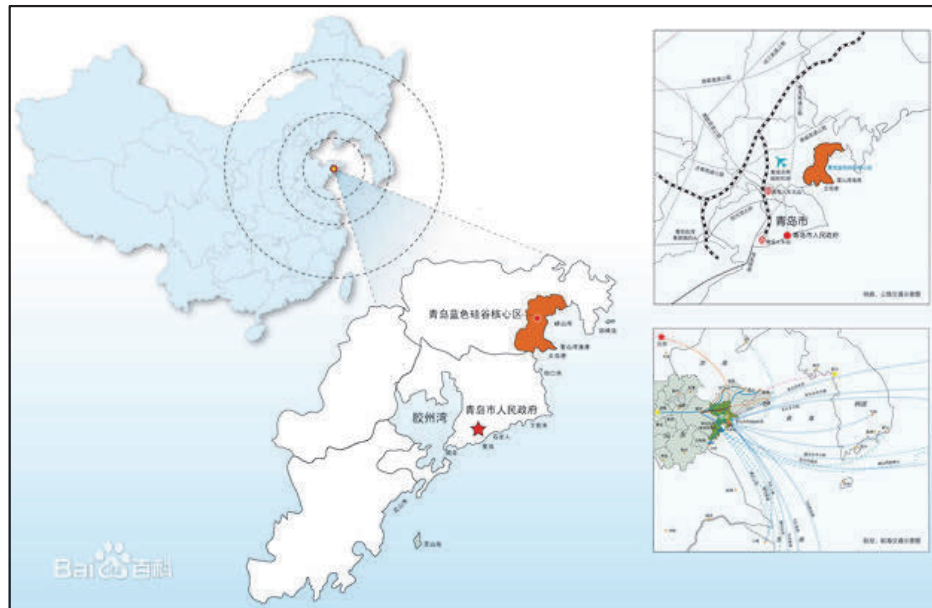
2) 칭다오 남색 실리콘밸리는 칭다오시 서북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허베이-
산둥통신

칭다오
남색실리콘밸리
조성사업
국가전략구역
승격

허베이- 산둥통신

칭다오
남색실리콘밸리
조성사업
국가전략구역
승격



<그림 5> 칭다오 남색 실리콘밸리 위치도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 남색 실리콘 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은 ‘남색중심’의 건설 프로젝트이다.

- ‘남색중심(蓝色中心)’은 총건축면적 48만㎡의 규모로서, 3개의 공정으로 나뉘게 되며, 제1 단계에서는 129,494㎡의 규모로 개발된다.
- 실리콘밸리신도시의 종합운영모형은 남색실리콘밸리핵심행정서비스센터, 창업센터, 비즈니스상업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한 곳에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한편, 각 건설프로젝트는 배산임해형의 자연조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6> '남색센터(蓝色中心)' 조감도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 지난 5월 16일, 남색중심상업지구 설명회가 은행나무온천관광호텔(香根温泉度假酒店)에서 진행되었다. 스타벅스, 하겐다스를 포함한 세계적 식음료기업들과 칭다오 내의 많은 저명기업들, 남색 실리콘 밸리 핵심구 관리위원회 등이 참석해서, 향후 '남색중심(蓝色中心)'의 발전계획과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남색중심의 상업기능은 중심업무기능과 연계된 서비스, 즉, 현대화된 고급식당, 오락, 휴식, 쇼핑 등의 다양한 상업기능이 융합된 형태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 칭다오 남색 실리콘 밸리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프라 투자

- 'R 1'경전철이 빈하이대도(滨海大道)를 통과하게 될 예정이며, 또한, 칭다오-인촨(青岛-银川), 지난-칭다오(济南-青岛), 칭다오-웨이하이(青岛-威海)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한 '30분 생활권', '30분 경제권'을 조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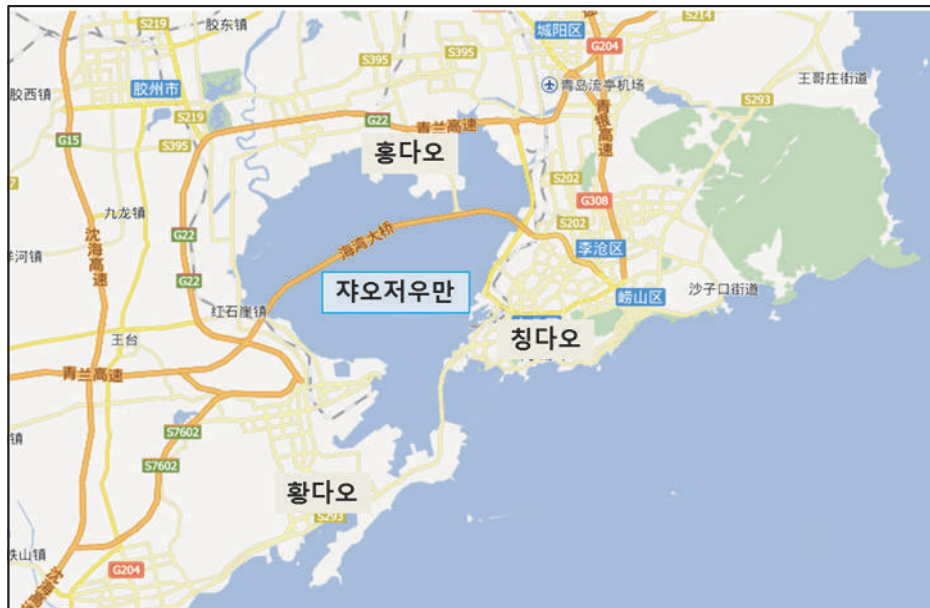
허베이- 산둥통신

칭다오
남색실리콘밸리
조성사업
국가전략구역
승격

- ‘칭다오 남색 실리콘 벨리 신도시(青岛蓝色硅谷新城)’의 개발은 국가급신구인 ‘칭다오서해안신구(青岛西海岸新区)’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향후, 서해안신구를 단순한 제조업 중심기지가 아닌 연구 개발·생산·국제비즈니스·첨단도시의 기능이 융합된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 칭다오, 홍다오신구(红岛新区)인프라건설 시정부 비준 획득

- 칭다오시(青岛市)는 2012년부터, 자오저우만(胶州湾)을 중심으로 칭다오(青岛), 황다오(黄岛), 홍다오(红岛)의 3개 도시권으로 구성된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는 구상 하에 홍다오신구(红岛新区)의 골간을 형성할 간선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 칭다오시 정부는 도시공간구조를 칭다오, 황다오, 홍다오의 3개 중심을 골간으로 하는 다핵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 홍다오경제구(红岛经济区)는 자오저우만(胶州湾)의 북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총면적 160만km²에 달하고, 향후, 칭다오시 전체의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거점 및 창업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홍다오(红岛)에는 정무, 문화, 의료 등 시급 공공서비스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국제업무와 첨단과학기술혁신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그림 7> 자오저우만(胶州湾)을 중심으로 한 칭다오 시의 공간구조
자료 : 바이두(map.baidu.com)

- 산둥신문(山东新闻)의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 고속철도공사(青岛高铁公司)’와 칭다오 시정부가 ‘홍다오 교통허브 종합개발합작협약(红岛枢纽站综合开发合作协议)’을 체결함에 따라,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홍다오 교통허브센터(红岛枢纽站)’가 건설될 것이라 밝혔다.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홍다오신구
인프라건설
시정부비준획득



<그림 8> 지난-홍다오 간 고속철도 노선도
자료 : 중국철도노선망(114piaowang.net)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5대 중점
관광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칭다오시(青岛市)는 이를 위해 현재 ‘칭다오 홍다오개발건설 집단 유한공사(青岛红岛开发建设集团有限公司)’를 설립하고, 54.5억 위안을 투자한 상황이다.
- 향후 2019년 홍다오역(红岛站)이 완공되면, 홍다오역에서 지난역(济南站)까지 1시간, 베이징과 상하이까지는 3시간 내에 도착하는 고속철도가 운행될 예정으로 향후, 산둥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허브가 될 전망이다.
- 한편, 이와 더불어 홍다오에 설치되는 주요 기초시설로는 홍다오편구(红岛片区)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내부 도로, 교량 공사, 도로와 연계되는 각종 관로(管路), 도로 범위 내의 조명과 신호등, 표지판 등이 있으며, 칭다오 신공항의 건설에 따라 추진되는 각종 기초시설 건설과 연계 개발할 계획이다.

◎ 칭다오시 5대 중점 관광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산둥반도의 남색경제구가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칭다오 시(青岛市)의 서해안신구(西海岸新区)가 국가급신구로 비준되는 등 해양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진행되면서, 해양형 휴양 및 관광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산업구조고도화와 이에 수반하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 칭다오시 관광국은 향후, 홍다오경제구(红岛经济区)의 ‘동방 에덴공원(东方伊甸园)’, 황다오구(黄岛区)의 ‘동방영화도시(东方影都)’, 지모시(即墨市)의 ‘모티엔35몰(摩天三五Mall)’, ‘해양주제공원(海洋主题公园)’, ‘긴사슴여가농장(长鹿休闲农庄)’ 등 5곳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칭다오 시 관광국은 “관광소비촉진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여행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라는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여가휴양여행, 관광여행, 비즈니스 여행, 문화여행, 해양여행, 향촌 여행, 체육훈련여행 및 생태여행의 8대 여행상품을 칭다오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칭다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해양휴양관광 이 외에도, ‘다구허(大沽河) 연해 생태관광집중구’, 칭다오맥주(青啤), 하이얼(海尔), 화동포도주(华东葡萄酒) 등 공업관광시범지, 전통 어촌마을, 온천, 휴양산림 등을 포함하는 생태적 향촌 관광 시범지 등을 칭다오 관광국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 **홍다오경제구(红岛经济区)의 ‘동방 에덴공원(东方伊甸园)’은 아시아 최초의 ‘에덴공원’ 복합단지로서, 매년 수백만의 중산층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래의 에덴공원(伊甸园)은 뉴욕타임즈가 세계8대 기적으로 꼽은 것으로서 1996년부터 총체계획을 시작해 런던에서 400여km 떨어진 콘월(Cornwall)에 6년에 걸쳐 완공한 세계 최대규모의 온실식 물원이다.
- 약 10억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칭다오 특색의 여가 휴양 단지로 개발되며, 생태,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콘텐츠를 포함한 사계절 관광형테마파크로서 개발될 계획이다.

**허베이-
산둥통신**

칭다오,
5대 중점
관광 프로젝트
건설 추진

허베이- 산둥통신

칭다오,
5대 중점
관광 프로젝트
건설 추진



<그림 9> 동방 에덴공원 모식도

자료 : 소후(mt.sohu.com)

■ 황다오구(黄岛区)의 '동방영화도시(东方影都)'는 중국 최대의 부동산개발업체인 완다그룹(万达集团)이 5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규모의 미디어 산업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 해당 단지(complex)의 면적은 376만㎡, 총건축면적 540㎡로 미디어 산업단지, 컨벤션센터, 호텔, 완다(万达)백화점, 관광쇼핑센터, 국제 병원, 술집거리 등 기능구역으로 구분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6년 6월 임시 영업을 시작하며, 2017년 6월 정식개장할 예정이다.
- 한편, 완다그룹(万达集团) 관계자에 따르면, 동방영화도시에는 50여 곳의 세계적인 미디어 업체들이 입주하고, 매년 100여 편의 영화 제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림 10> 동방영도 단지

자료 : 소후(mt.sohu.com)

■ 지모시(即墨市)의 ‘모티엔35몰(摩天三五Mall)’은 해양산업실리콘밸리에 자리잡으며 디즈니랜드의 규모를 능가하는 수준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모티엔그룹(摩天集团)의 투자로 진행되며, 상업몰에 대한 투자 금액은 약 29억 불 규모이며, 건축면적은 약 170만㎡이며, 실내 공간은 오락, 쇼핑, 식도락, 예술전시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 쇼핑몰 내부에는 쇼핑, 여행, 주제공원, 오락의 개방형 상점으로 개발되며, 매년 약 6,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미국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니언공원 등의 관람객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총 투자액은 39억 불 규모인데, 이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가 500억 위안으로 1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 이 밖에, ‘해양주제공원(海洋主题公园)’, ‘긴 사슴 휴양농장(长鹿休闲农庄)’ 프로젝트 또한, 칭다오시 관광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시 관광국은 이를 통해, 산동성의 남색경제구사업 추진과 연계한 종합형 해양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5대 중점
관광 프로젝트
건설 추진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5대 중점
관광 프로젝트
건설 추진

※ 참고문헌

1. 2011. 1. 山东省人民政府, “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
2. 2014. 6. 18. 青岛晚报, “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生物产业联盟成立”
3. 2014. 12. 30. 威海晚报, “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化工产业联盟海洋动力装备产业联盟在滨海成立”
4. 2014. 12. 31. 新华网山东频道, “半岛蓝色经济区海洋产业联盟在潍坊滨海成立”
5. 2015. 5. 16. [凤凰青岛](#), “青岛蓝色硅谷上升国家策略 总投资1051亿元”
6. 2015. 9. 7. 山东凤凰网, “崂山生物产业园首个蓝色经济项目 : 产品已达国际领先水平”
7. 2015. 9. 12. 中国经营报, “碧桂园十里金滩: 打造胶东半岛海上新城”
8. 2015. 9. 21. 中国水产养殖网, “山东半岛蓝色经济区海洋食品产业联盟在威海成立”
9. 2015. 9. 25. 搜狐, “盘点青岛超级旅游大项目 几个在建工程都比迪斯尼”
10. 2015. 9. 25. 大众网青岛, “红岛新区市政府配套工程获批 完善路网建设”
11. 2015. 10. 20. 大众日报, “山东半岛蓝色经济区第6家产业联盟在日照成立”
12. 2015. 10. 29 掌上青岛, “青岛似规划建设五大旅游项目名单已揭晓”
13. 2015. 11. 3. [凤凰青岛](#) “蓝色硅谷核心区、产业区”

제6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지방차원의 대 중국 전략 : G2 시대 중국시장, 충남경제의 관점에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지방차원의 대 중국 전략 : G2시대 중국시장, 충남경제의 관점에서’
주제로 강연

- 지난 11월 25일(수),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 정책기획관실, 환황해 프로젝트팀 관계자, 한밭대학교 강희정교수 및 시 군 관련 공무원,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대학교 한광수총장의 ‘지방차원의 대 중국 전략 : G2시대 중국시장, 충남경제의 관점에서’란 주제의 강연과 참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한광수 총장은 미-중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구도 변화의 환경 속에서,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국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지자체의 중국 전문 인력 부족 등 중국교류역량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류대상 지역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 1> 한광수 총장 강연 모습(2015.11.25., 충남연구원)

- 또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류 전략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강조했고, 우리나라 서해안 지자체들도 중국의 발전지구인 동부연해지역과 황해를 마주하고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보다 전략적으로 대(對) 중국교류에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서양인들의 경우, 19세기부터, 세대를 이어가며 중국 진출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해온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92년 한중수교 이후 20여 년에 불과한 일천한 교류역사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한데, 중국 경제가 뉴노멀(新常态) 성장전략으로 인해 산업구조고도화와 내수소비의 진작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제까지 우리가 비교우위를 축적해 온 중간재 수출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 현재 충남의 기반산업이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 제조업인데,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체계 속에서 충남이 다져온 기반과 비교우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증대된 실제 경제규모를 감안한다면, 뉴노멀 성장 전략 하의 5% 성장률도 큰 눈덩어리가 굴러가듯이 증대되는 총량 경제 규모를 정확하게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 총장의 강의와 토론에 이어서 보령시 최철구 주무관의 올해 '보령 머드 축제 소개와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올해는 메르스(MERS)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었고, 중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추세가 우리가 예측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그 기반이 되는 대(對)중국교류협력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忠清中国论坛

‘지방차원의
대 중국 전략 :
G2시대중국시장,
충남경제의
관점에서

- 실제 보령시 머드 축제는 산둥성 옌타이시(烟台市)와 랴오닝성 따리엔시(大连市),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상하이시 칭푸구(青浦区) 등에서 홍보활동과 상호교차 개최활동을 진행하고, 스페인 토마토 축제와도 각 행사장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연구원 정종관 박사는 지방차원에서의 중국교류가 중요하긴 하지만,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한광수 총장은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지방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교류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국의 국토면적과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교류대상 지역별 독특한 지역특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선택과 집중원칙과 차별적,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 2> 제6회 ‘충청중국포럼’ 단체사진

- ◎ 올해 포럼은 11월 포럼으로 마무리하고, 내년(2016년) 1월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이경복 박사의 '충남의 역사적 위치와 한강해권 문화자산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21일 당진시에서 출범한 이래 이번 포럼까지 총 6차례 개최했으며, 그 동안 시, 군의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들에게 대(對) 중국교류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본 틀을 갖추어왔습니다. 올해 '충청중국포럼'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고, 2016년에는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yookwang1234@cni.re.kr, 041-840-1175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과 외부필진이 정리, 해석한 것으로서, 충남연구원 및 충남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사항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yookwang1234@cni.re.kr, 041-840-1175)

忠清中国论坛

‘지방차원의
대 중국 전략 :
G2시대중국시장,
충남경제의
관점에서